

녹색연합(GreenKorea)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배난주

보도자료

서울시 성북구민 대상 기후변화 인지도 설문조사

구민 10명 중 7명, 기후변화 문제 인지, 그 중 97.3%, “기후변화 심각하다”

**교육과 정보 제공,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등을 성북구청의 역할로 꼽아
실천단위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명해져야**

최근 장마가 끝난 뒤 장마 때보다 많은 비가 내렸던 "8월 이변"과 그 뒤 이어진 폭염으로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후보호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대응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실천단위로써 폐기물, 환경오염물질 단속, 조례 제정 등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여 지난 8월 10~11일 이틀간 성북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지도와 대응방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기후변화 문제를 알고 있으며 그 중 97.3%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도 10명 중 8명(85.2%)이 기온상승, 잦은 태풍과 홍수 등 재해 증가, 가뭄 및 물 부족 등의 기후의 이상현상을 체감한다고 대답해, 많은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파괴(38.2%)과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35.1%)으로 답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원인인 화석연료 사용보다는 일반적인 환경파괴가 기후변화를 초래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연생태계 파괴(42.8%), 자연재해 피해(32.5%), 건강 위협(20.6%), 농림어업, 제조업 등 경제활동(3.6%) 순으로 나타나 강수량의 증가와 지속된 폭염으로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시민들은 늘어났지만 기후변화가 자신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체감하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10명 중 6명은 TV매체, 2명은 인터넷 검색, 1명은 종이매체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시각적인 영상이 시민들에게 기후변화 문제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주체(중앙정부 제외)를 질문한 결과 10

명 중 4명은 시민 스스로, 10명 중 3명은 구청·동사무소라고 답해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성북구민들은 10명 중 5명은 절전형·친환경 제품은 구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절전형·친환경 제품이 비싸서 36%, 절전형·친환경제품이 어디에서 파는지 몰라서 24.9%,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20.5%, 무엇인지 잘 몰라서가 15.9%로 답해,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기전력에 관한 질문에서도 10명 중 9명이 대기전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 중 4명만이 실천한다고 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를 통해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 홍보 또한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 외에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자전거 도로·걷고 싶은 도로 확대, 환경부하가 적은 자동차 확대, 환경세 도입 순으로 답해 인위적인 억제책보다는 자율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안에 숲이나 공원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는 10명 7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서울시 안 공원의 증가율은 겨우 1.8%였으며 일인당 도시공원이 넓은 구와 좁은 구는 30배나 차이가 나는 등 구별 차이가 심각했다.¹⁾ 재생에너지 사용이 저조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다른 에너지보다 효율적이지 않거나 (10.8%) 비싸서(10.2) 라는 이유보다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41.0%),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31.8) 라는 답변이 높아, 비록 재생에너지가 가진 한계가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를 보급해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청 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해서는 친환경제품·에너지절약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이어졌다.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주민대상 강좌 진행,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구민들은 우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기후보호에 앞장서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서울시는 2012년까지 1000억원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여 지난 4월 “서울친환경에너지”를 선언한 이후, C40 기후리더쉽 그룹 제 3차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서울 친환경건축기준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의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또한 영등포구는 2006년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 지구온난화대응계획을 세웠다.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강남구는 최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절약프로젝트를 세웠으며 시민참여형 계획을 발표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기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각 구청은 해당구의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990년대까지는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지역의 에너지사용량을 파악하였지만 연료원의 단일화와 안정된 공급체제로 현재 해당구의 에너지소비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구청은 거의 없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단계도 밟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25개 구는 해당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부존량을 파악해야한다. 한편 공장지대가 대부분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지금 상황에서도 구청의 환경부서는 여전히 환경오염물질 단속을 주 업무로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나 대기질, 환경호르몬과 같은 생계형 문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도시지역의 만성질환자²⁾, 65세 이상 고령층은 폭염과 대기오염으로 조기에 사망할 위험이 높고 사회·경제적 취약자들은 수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 조기사망, 전염성 질병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³⁾ 특정구를 제외하고 기초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1) 영등포구 2.99㎡/인, 종로구는 61㎡/인 (2005년)

2) 심장병 및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 질환

3) 한화진 외, 기후변화의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후변화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이론적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풀일 것인지 고민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넘어섰다. 아직 우리나라는 의무감축국이 아니며 뚜렷한 기후변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서울시, 광주시, 대구시, 경기도, 제주도, 과천시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보호를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입장 또한 분명하다. 다만 시나 도에서 수립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정책을 도입하여 실천단위로써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구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연합의 제안>

- ▲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통계 보유 및 관리
- ▲ 해당 지역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부존량 조사
- ▲ 폐기물, 환경오염물질 단속하는 구청 환경부의 업무를 온실가스 단속, 대기오염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와 환경호르몬과 같은 생계형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조직 개편
- ▲ 에너지·기후변화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 ▲ 구민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보와 실천방안 제공
- ▲ 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실천 강화
- ▲ 대피소 설치, 수시 건강 확인 등 보건대책 마련

2007년 09월 05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배난주 (016-618-1583, nanju@greenkorea.org)

참고자료

1)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관	엠브레인
조사대상	2007년 8월 현재 성북구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기간	2007년 8월 10일 ~ 11일(양일간)
표본크기	700명
표본추출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pm 3.7\%P$

2) 설문지와 답변

- ① 1980년대 이후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아주 잘 알고 있다	8.9
다소 아는 편이다	64.9
다소 모르는 편이다	22.2
전혀 모른다	4.0
합계	100.0

- ② 위와 같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 인지충)

심각한 편이다	97.3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2.4
잘 모르겠다.	0.3
합계	100.0

- ③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접하십니까? (기후변화 인지충)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 TV 매체	65.4
포털뉴스를 포함한 인터넷	18.8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13.1
환경관련 책	1.3
주변 사람들	0.7
기타	0.7
합계	100.0

- ④ 이와 같은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 인지충)

무분별한 개발, 자연파괴	38.3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	35.1
대량생산, 대량소비 등 현대인의 생활양식	19.3
자연적인 현상	4.0
인구 증가	2.6
기타	0.5
잘 모름	0.2
합계	100.0

⑤ 기후변화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자연생태계 파괴	42.8
자연재해 등의 피해	32.5
건강 위협	20.6
경제활동 저해	3.6
잘 모른다	0.5
합계	100.0

⑥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온상승, 잦은 태풍과 홍수, 물 부족, 가뭄 증가 등 지구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십니까? (기후변화 비인지충)

그런 편이다	85.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7
잘 모르겠다.	1.1
합계	100.0

⑦ 환경보호를 위해 승용차 사용을 억제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 보십니까?

문항	1순위	중복(1순위+2순위)
대중교통 수단 활성화	46.3	63.4
자전거도로, 걷고싶은 도로 확대	20.1	48.0
경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부하가 적은 자동차 확대	14.4	40.5
탄소세 등 환경세 도입	7.3	23.0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유류 확대	6.5	11.1
차고지 증명제 등 주차장 엄격 관리	4.5	10.5
기타	0.4	0.7
잘 모름	0.5	0.5
합계	100.0	

⑧ 바이오디젤은 식물의 기름을 정제하여 만든 기름으로 경유 대신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오늘 이전에 바이오디젤에 대해 사용해 보셨거나 알고 계셨습니까?

인지- 사용한 적 있다	0.9
인지- 사용한 적 없다	17.8
들어는 보았다	41.5
잘 모른다	39.8
합계	100.0

⑨ 귀하의 생활권 안에 숲이나 공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7.0
다소 충분하다	21.4
다소 부족하다	36.3
아주 부족하다	35.2
잘 모르겠다	0.1
합계	100.0

⑩ 귀하는 귀하 주변 사람들이 절전형 제품이나 친환경상품을 구입하려고 노력한다고 보십니까?

매우 노력한다	6.6
다소 노력한다	36.4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43.6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8.7
잘 모르겠다	4.7
합계	100.0

⑪ 사람들이 절전형 제품이나 친환경제품을 구입하려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전형/친환경제품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15.9
절전형/친환경제품이 어디서 파는지 모르거나 파는 곳이 주변에 없어서	24.9
절전형/친환경제품이 비싸서	36.0
절전형/친환경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20.5
기타	1.5
잘 모르겠다	1.3
합계	100.0

⑫ 대기전력이란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끄더라도 콘센트를 뽑지 않으면 계속 전기가 흘러 낭비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귀하는 오늘 이전에 대기전력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주 잘 알고 있다.	43.0
다소 아는 편이다	46.3
다소 모르는 편이다.	7.9
전혀 몰랐다	2.8
합계	100.0

⑬ 귀하의 주변 사람들이 전원을 끌 때 콘센트를 뽑는 편입니까?

매우 그렇다	10.1
다소 그런 편이다	26.7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45.8
전혀 그렇지 않다	14.9
잘 모른다	2.5
합계	100.0

⑭ 귀하는 다음중 냉난방을 과도하게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행, 마트, 백화점, 극장 등 대중이용시설	57.8
동사무소, 구청 등 공공기관	14.3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12.6
회사 사무실	12.1
기타	0.1
잘 모른다	3.1
합계	100.0

- ⑮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약 2%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41.0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31.8
다른 에너지보다 효율적이지 않아서	10.8
다른 에너지보다 비싸서	10.2
기타	0.7
잘 모른다	5.5
합계	100.0

- ⑯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누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성북구 주민	41.2
성북구청 및 동사무소	33.8
성북구 내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NGO	15.3
성북구 내 교육기관	4.8
성북구 내 상공업자	2.5
기타	1.1
잘 모른다	1.3
합계	100.0

- ⑰ 성북구청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항	1순위	중복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	28.0	39.5
친환경제품/에너지절약제품 정보 제공	27.5	46.0
공공기관 출선수범	25.3	46.4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7.6	29.1
구민 대상 강좌 진행	5.6	20.4
구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4.7	13.8
기타	0.0	0.3
잘 모른다.	1.3	1.3
합계	100.0	